

보도시점

(전매체) 배포 즉시

##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.

### 1. 언론 보도내용

조선일보는 「'주먹구구' 전기요금 지원 정책에 ... 소상공인들 '분통'(5.27(월) 조건)」 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했습니다.

①“두세달 넘게 지원금 지급이 감감무소식 ... 관련 기관 사이 정책 협조가 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”, ②“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126만명으로 추정 ... 휴·폐업 중인 소상공인까지 포함”

### 2.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

#### ① 관련 기관 정책협조 미진 등 지원금 지급 지연 관련

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세청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간 7차례 회의를 거쳐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있으나 매출액, 개·폐업일, 전기용도 등을 관련 기관이 교차검증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확인이 예상보다 지연\*되고 있어, 보다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입니다.

\* 신청자 57만명 중, 26만명은 대상자 여부 확인 중 (5.27.(월) 기준)

#### ② 지원 대상자 산출 시 휴·폐업 중인 소상공인 포함 관련

휴업 여부는 사업 지원 요건과 무관해 지원 대상자 수(126만명) 산출 시 휴업기업을 포함하였으나, 폐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 수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순배 (044-204-7820)
		담당자	사무관	최형민 (044-204-7825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